13-12 [통권 529호] 2013. 03. 15.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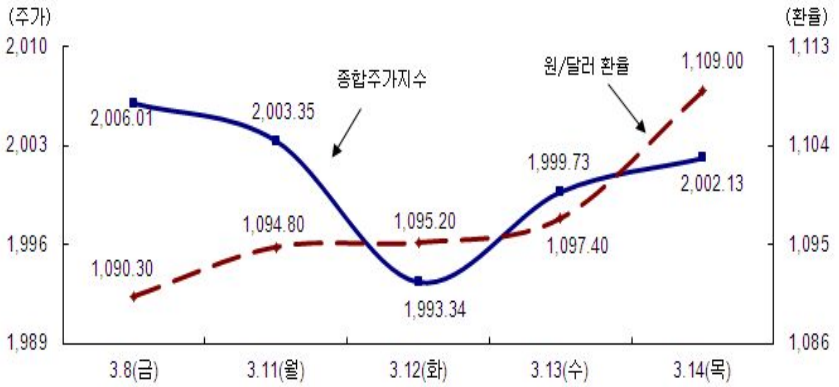
□ 세대별 행복도 차이의 배경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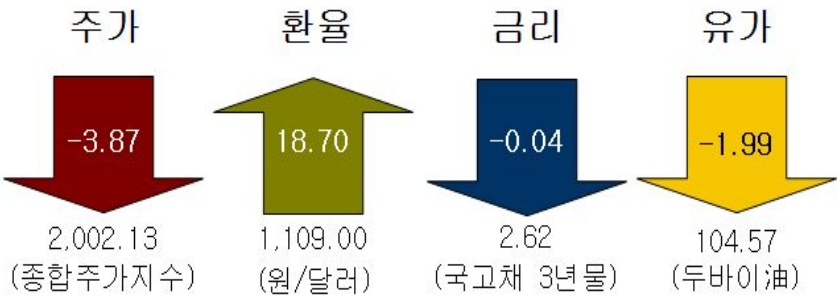
– 고령층일수록 일자리, 노후준비 등 '행복인프라' 취약

현대경제연구원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3.8~3.14)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세대별 행복도 차이의 배경과 시사점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3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두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 성 : 김 동 열 수석 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Executive Summary

□ 세대별 행복도 차이의 배경과 시사점 : 고령층일수록 일자리, 노후준비 취약

■ 한국인의 낮은 행복도

제1회 세계행복의 날(3월20일)을 계기로 한국의 행복수준을 살펴본 결과, 세계10위권의 경제규모와 달리 한국의 행복 순위는 OECD 36개 회원국 중 24위에 불과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적 행복지수' 추이를 보면, **20대가 가장 높고, 50대와 60세 이상 고령층은 가장 낮다. 소득수준은 50대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도는 연령이 50대, 60대로 많아질수록 우하향**하며 떨어지고 있어서, 관련된 경제적 지표(행복인프라)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세대별로 분석해 보았다.

■ 세대별 '행복인프라' 차이 : 고령층일수록 일자리, 노후준비 등 행복인프라 취약

경제적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5개 하위지수와 관련 있는 **소득, 분배, 소비, 고용, 노후준비 등 5가지 경제지표를 행복인프라**로서 도출한 후에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대별로 비교·분석**해 보았다.

5가지 경제적 지표를 비교해 보면 ①**소득은 50대가 가장 높고,** 2011년 현재 전체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60세 이상의 소득수준은 64.5에 불과했다. 적자가구 비율도 60세 이상이 가장 높았다. ②**분배**를 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중산층 비중이 낮았다. 60세 이상의 **중산층 비중**이 46.9%로 가장 낮으며, 상대적 빈곤율은 40.0%로 가장 높다. 이어서 50대의 소득분배 구조가 취약했다. ③**소비구조**를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엥겔계수가 높았으며, 60세 이상의 **엥겔계수**와 주거광열비가 가장 높아 생활수준이 가장 열악했다. 다음으로 50대의 소비수준이 열악한 편이었다. ④**고용**을 보면, 상용직 비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낮아졌고, 고용률은 40대를 정점으로 이후 낮아졌으며, 정규직 비율은 30대를 정점으로 이후 낮아졌다.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37.5%로서 평균(59.4%)에 크게 못 미치고, **정규직 비율**은 29.5%로서 평균(66.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50대도 60세 이상에 이어 고용이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다. ⑤**노후준비**를 보면, 60세 이상이 가장 취약했으며, 50대도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60세 이상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14.6%로서 다른 연령대의 80%정도와 큰 차이를 보였고, 50대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30%로 낮았다.

■ 시사점

위와 같이 5가지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세대별 행복인프라를 비교해 본 결과, 50대와 60세 이상의 고령층일수록 일자리와 노후준비 등이 취약했다. **60세 이상 가구는 5가지 모든 지표에서 가장 나쁜 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노후준비'가 취약**하므로 **'기초노령연금'을 보완**하고, **고령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후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50대는 '소득'을 제외한 4개 지표에서 60대 다음으로 취약했으며, 특히 취약한 '고용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확산과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부모와 함께 사는 2세대 및 3세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고령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나누고 행복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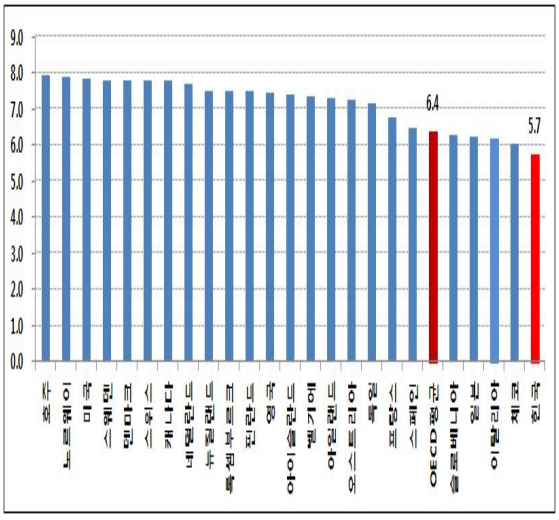
1. 한국인의 낮은 행복도

○ **UN지정 제1회 세계행복의 날(3월20일)을 계기로 한국의 행복지수 순위를 살펴본 결과, OECD의 행복지수[1]는 36개 회원국 가운데 24위에 불과했으며, 세계가치조사(WVS)의 행복지수는 38위에 그침**

- 2013년 현재 국민소득 2만 달러, 무역 8강, 국가 명목GDP 15위 등과 같은 여러 경제지표 측면에서 한국경제가 우수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는 아직 그만큼 높아지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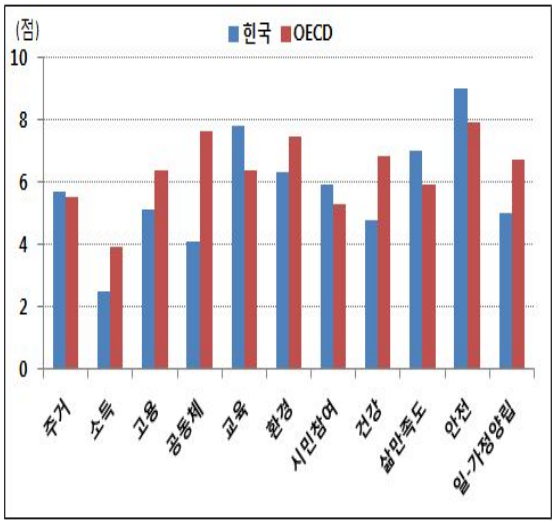
- OECD가 2012년 발표한 행복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36개 회원국 가운데 24위에 그쳤으며, 세계가치조사(WVS) 및 갤럽의 조사 결과는 더 낮게 나타남
  -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11개 하위요소 가운데 소득, 고용, 일-가정 양립, 공동체, 건강, 환경 등 6개의 값이 OECD 평균을 하회
  -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조사대상 100개 국가 중에서 38위에 그쳤으며, 갤럽이 148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체감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한국인들의 행복 순위는 96위에 불과[2]

< OECD 행복지수 및 국가별 순위 >



자료: OECD (2013)
주: 1) 10점 만점
2) 11개 하위지수의 산술평균으로 순위 정함

< OECD 행복지수 구성요소별 비교 >



자료: OECD (2013)
주: 10점 만점

1) OECD의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는 주거, 소득, 고용,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가정 양립 등 11개 하위요소로 이루어짐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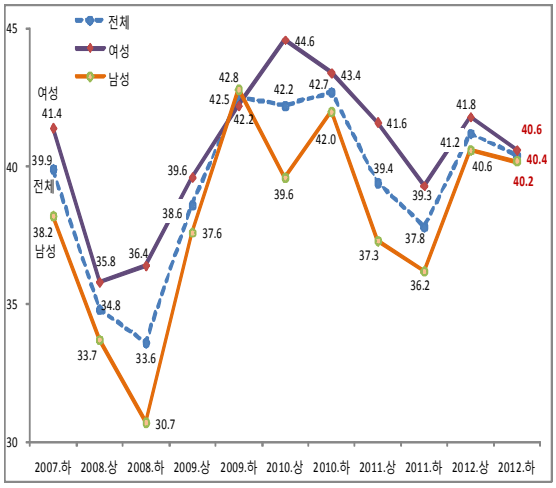
2) http://www.earth.columbia.edu/sitefiles/file/Sachs%20Writing/2012/World%20Happiness%20Report.pdf (미 컬럼비아대학 발간, 2012년도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참고)

○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도 100점 만점에 50점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이며, 세대별로 비교해보면 소득이 가장 높은 50대의 행복도가 꼴찌에서 두 번째이며, 60세 이상의 행복도가 가장 낮음**

-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적 행복지수 결과를 보면, 2007년 12월 이래 계속해서 100점 만점 가운데 50점에 못 미치고 있음
  - 2007년 12월 39.9점을 기록한 이래 2012년 12월 40.4점을 기록하는 등 11회 연속 50점(100점 만점)을 하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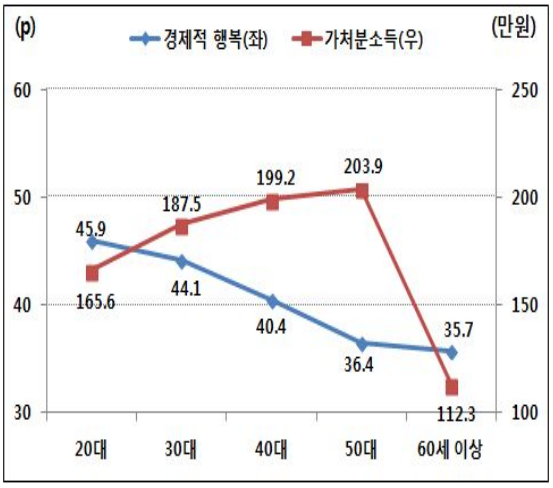
- 세대별 경제적 행복지수 추이를 보면, 20대의 행복도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의 행복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우하향(右下向) 곡선[3]을 그리고 있음
  - **20대에서 50대까지 소득수준은 계속해서 올라가 정점에 도달**하는데, **50대의 행복감은 60세 이상과 비슷하게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음[4]
  - 제1회 세계행복의 날(3월 20일)을 맞이하여, 세대별 **행복인프라**[5]의 차이를 소득, 분배, 고용, 소비, 노후준비 등 5가지 경제지표 중심으로 살펴봄

< 경제적 행복지수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적 행복지수, 각년도
주: 100점 만점

< 세대별 행복지수 및 소득수준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2), 통계청(2011)
주: 가처분소득은 '균등화'한 것. 2011년 기준

3) 서구의 경우 Oswald(1997), Blanchflower & Oswald(2000), Carol Graham(2009), 브루노 프라이&알로이스터처(2008), 요하네스 발라허(2011) 등에 따르면, 건강과 국가적 특성 등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 연령과 행복간의 U자형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으며, 나이가 들수록 상황에의 적응 능력이 커지고, 삶을 더욱 충만하게 즐기게 되기 때문에, 고령자의 행복수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고 해석

4) 국민 개개인의 행복감을 드러내는 '자살률' 추이를 보면, 한국은 1990년 8.8명, 2000년 13.6명, 2010년 33.5명으로 급증하는데 비해, OECD 평균 자살률은 2010년 12.9명으로 오히려 하락. 특히, 2010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10만명당 자살자 수)은 80.3명으로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5)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들(소득, 분배, 일자리 등)을 '행복인프라'라고 칭하며, 여기서는 소득, 고용, 노후준비, 분배, 소비 등 5가지 경제지표를 '행복인프라'로서 도출하고, 세대별로 살펴보았음

2. 세대별 '행복인프라' 차이

○ **(5가지 경제지표(행복인프라) 도출) 경제적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5가지 하위지수와 관련된 5가지 경제지표를 '행복인프라'[6]로서 도출함**

-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적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요소와 해당 질문을 분석하여, 경제지표와의 연관성을 분석해본 결과, 소득 수준, 소득 분배, 소비 수준, 고용 안정성, 노후 준비 등 **5가지 경제지표**를 도출할 수 있었음

< 경제적 행복지수의 구성, 질문, 관련 경제 지표 >

구성		질문	관련 경제지표
5개 하위 지수	① 경제적 안정	나(또는 귀댁의 가장)의 일자리와 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일 것 같다.	소득, 고용, 노후 준비
	② 경제적 우위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편이다 최근 6개월간 경제적 열등감으로 마음 상한 경험이 있다.	소득 수준, 소득 분배
	③ 경제적 발전	나의 소득, 자산 등 경제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다.	소득 전망, 소비 수준
	④ 경제적 평등	현재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해 질 것이다.	소득 분배
	⑤ 경제적 불안	내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 내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소비, 고용
⑥ 전반적 행복감		나는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위에서 도출한 소득, 분배, 소비, 고용, 노후준비 등 **5가지 경제지표는 행복을 뒷받침해주는 '행복인프라'로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20대부터 60세 이상까지 **세대별로 분석함**

< 경제적 행복지수와 관련된 경제적 요인(행복인프라) >

경제적 요인 (5가지 경제지표)	비고 (자료 출처)
- 소득 수준, 소득 분배, 소비 수준, 고용의 안정성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1
- 노후 준비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6) 본 보고서에서는 행복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적 특성을 지닌 경제적 요인들을 '행복인프라'라고 부르고, 그 구체적 지표로서 소득, 분배, 소비, 고용 안정성, 노후준비 등 5가지를 도출하여 세대별로 분석하였음. **요하네스 발라허(2011)**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유전적 기질, 성격, 가치관, 욕구 수준), **인구통계적 요인**(연령, 교육, 종교, 대인관계, 건강), **정치적 요인**(정치 참여 가능성), **경제적 요인**(소득수준, 분배, 직장 안정성, 직업 만족도)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함. (<별첨 1> '행복의 결정 요인' 참조)

① (소득 수준) 세대별로 보면 50대의 소득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의 소득이 가장 낮으며, 적자가구 비율은 60세 이상이 가장 높음

- 2011년의 경우 50대 가구주의 소득이 204만원으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 가구주의 월 가처분소득은 112만 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음. 전체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적 비중도 64.5에 불과함

< 연령별 소득수준 및 가계수지 >

(단위: 원, %)

	소득수준		적자가구 비율		흑자율	
	2007년	2011년	2007년	2011년	2007년	2011년
20대	1,531,774 (102.3)	1,656,096 (95.1)	19.4	26.1	23.8	20.8
30대	1,634,129 (109.1)	1,875,396 (107.7)	20.6	23.3	25.3	23.6
40대	1,634,809 (109.1)	1,991,858 (114.4)	28.0	27.3	19.6	20.0
50대	1,726,214 (115.2)	2,039,038 (117.1)	25.3	25.6	27.1	26.7
60세 이상	975,996 (65.2)	1,122,675 (64.5)	35.8	38.2	16.6	21.9
전체	1,498,005 (100)	1,741,303 (100)	27.2	29.0	22.6	22.8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07, 2011)를 활용하여 재계산)
주: 1) 전체 가구(1인 가구 포함, 비농가), 소득수준 비교는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2) 흑자(또는 적자)액=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 소득-비소비지출
3) 흑자율 = 흑자액/처분가능소득*100

- 적자가구 비율[7]을 보면, 2011년의 경우 60대 이상은 38.2%로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으며, 2007년의 35.8%에 비해서 더 높아짐
  - 20대의 적자가구 비율은 2007년 19.4%에서 2011년 26.1%로 크게 증가했으며, 30대도 적자가구 비율이 20.6%에서 23.3%로 소폭 증가함
  - 40대의 적자가구 비율만 28.0%에서 27.3%로 유일하게 감소함

- 흑자율을 보면, 60세 이상 가구는 2007년 16.6%에서 2011년 21.9%로 증가했으나, 20대, 30대, 50대 가구는 흑자율이 감소함
  - 60세 이상의 적자가구 비율은 증가했는데 흑자율은 높아졌다는 것은 일부 가구를 제외한 대부분 가구의 가계수지는 2007년에 비해 악화되었음을 의미

7) 낮은 소득과 높은 적가가구 비율은 높은 노인 빈곤율로 연결되는데, 2010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회원국 중 1위. 미국(23.7%), 일본(20.6%), 독일(8.3%), 스웨덴(6.1%) 보다 월등히 높음

② (소득 분배)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산층 비중은 낮아지고, 60세 이상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40%내외로 가장 높고 중산층[8]은 가장 적으며, 다음으로는 50대 가구의 소득분배도 취약한 상태에 있음

-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비율이 2007년에 비해 2011년에 소폭 증가했음에 비해, 20대부터 50대까지는 저소득층 비율이 2007년에 비해 감소했음
  - **60세 이상의 고소득층 비율은 13.1%로서 전체 평균 20.4%**를 밑돌며, 중산층 비율도 46.9%에 불과해 전체 평균 65.3%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50대의 경우에도 중산층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고, 고소득층은 평균보다 높아 분배구조가 취약한 상태**에 있음

< 연령별 소득계층별 비중 >

(단위: %)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상대적 빈곤율)	
	2007년	2011년	2007년	2011년	2007년	2011년
20대	20.2	12.2	66.6	75.3	13.2	12.5
30대	19.4	16.9	72.0	75.1	8.6	8.0
40대	22.5	22.4	68.7	69.6	8.9	8.0
50대	29.1	28.1	59.7	62.1	11.2	9.7
60세이상	10.7	13.1	50.3	46.9	39.0	40.0
전체	21.0	20.4	64.6	65.3	14.4	14.3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07, 2011)를 활용하여 재계산)

주: 1) 전체 가구(1인 가구 포함, 비농가),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2) 중산층 = 중위소득의 150%에서 50%까지 속하는 계층
3) 통계청(KOSIS)의 전체 가구 기준 중산층 비율보다 높은 이유는 '농가'가 빠져 있기 때문임

③ (소비 수준) 20대에서 60세 이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엥겔계수가 가장 높아졌고, 60세 이상의 문화비, 외식비 등 삶의 질 관련 지출은 가장 낮아서 생활수준이 가장 열악했으며, 50대는 두 번째로 열악한 상태

- 60세 이상 가구주의 월 평균 소비지출 금액은 약124만 원으로 40대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 266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엥겔계수는 21.2로 전체 평균 14.3보다 훨씬 높았고, 삶의 질 관련 지출의 비중은 낮음
  - **60세 이상 가구주**의 식료품비와 주거광열비 비중은 가처분소득 대비 각각 15.7%, 11.6%로서 전체 평균 10.2%, 7.9%보다 훨씬 높은 반면, 오락문화비

8) 통계청(KOSIS)의 전체 가구 기준 중산층 비율(2007년 63.9%, 2011년 64.0%)에는 '농가'가 포함되어 있으나, 본 보고서에는 '농가'가 제외되어 있어 중산층 비율(2007년 64.6%, 2011년 65.3%)이 소폭 증가함

와 음식숙박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지출의 비중은 평균보다 훨씬 낮음

- **50대 가구주**의 **엥겔계수는 60세 이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오락문화비와 음식숙박비 등 **삶의 질 관련 지출 비중은 두 번째로 낮아, 생활수준이 60세 이상에 이어 두 번째로 열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음
- **40대 가구주**의 교육비 비중은 13.7%로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非소비지출(세금, 사회보험료 등) 비중과 기타지출(대출상환 등) 비중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적자가구 비율도 두 번째로 높은 그룹임

< 연령별 가계 지출 구조 >

(단위: 천 원, %)

	소비 지출	식료 음료	주류 담배	의류 신발	주거 광열	가정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 상품	非소비 지출	기타 지출	부채 감소	엥겔 계수
20대	1,661	165	24	140	264	64	2	202	125	103	38	256	174	361	1,314	740	10.0
	(76.6)	(7.6)	(1.1)	(6.5)	(12.2)	(2.9)	(0.1)	(9.3)	(5.8)	(4.7)	(1.7)	(11.8)	(8.0)	(16.6)	(60.6)	(34.1)	
30대	2,344	289	29	160	243	103	1	320	137	140	198	299	284	665	2,073	1,202	12.3
	(72.8)	(9.0)	(0.9)	(5.0)	(7.5)	(3.2)	(0.0)	(9.9)	(4.2)	(4.3)	(6.1)	(9.3)	(8.8)	(20.7)	(64.4)	(37.3)	
40대	2,662	348	28	172	251	86	1	300	157	145	500	338	200	806	2,265	1,190	13.1
	(73.0)	(9.5)	(0.8)	(4.7)	(6.9)	(2.4)	(0.0)	(8.2)	(4.3)	(4.0)	(13.7)	(9.3)	(5.5)	(22.1)	(62.1)	(32.6)	
50대	2,227	316	29	150	231	76	2	292	146	115	217	299	202	762	1,765	843	14.2
	(66.5)	(9.4)	(0.9)	(4.5)	(6.9)	(2.3)	(0.0)	(8.7)	(4.4)	(3.4)	(6.5)	(8.9)	(6.0)	(22.8)	(52.7)	(25.2)	
60세 이상	1,239	262	17	68	194	56	3	127	61	57	21	124	108	355	754	330	21.2
	(74.1)	(15.7)	(1.0)	(4.1)	(11.6)	(3.4)	(0.2)	(7.6)	(3.6)	(3.4)	(1.2)	(7.4)	(6.4)	(21.2)	(43.9)	(19.8)	
전체	2,102	301	26	137	231	79	1	254	125	113	238	263	193	636	1,690	880	14.3
	(71.6)	(10.2)	(0.9)	(4.7)	(7.9)	(2.7)	(0.0)	(8.7)	(4.2)	(3.9)	(8.1)	(9.0)	(6.6)	(21.7)	(57.6)	(30.0)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1)를 활용하여 재계산)

주: 1) 비소비 지출은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경조사비, 기부금 등에 대한 지출
2) 기타 지출은 자산변동, 부채감소(대출상환, 전세금 반환 등), 자산이전 등에 대한 지출
3) 전체가구(1인 가구 포함, 비농가) 기준. 비중(%)은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
4) 엥겔계수 =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 소비지출)*100. 가구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

④ (고용의 안정성)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37.5%, 정규직 비율은 29.5%로서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고용이 가장 불안한 상태에 있으며, 50대도 60세 이상에 이어 두 번째로 고용이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음

- 2012년 현재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37.5%에 불과하고 전체 평균 59.4%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에 있으며, 과거에 비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음
  - **세대별 고용률은** 逆U字 형태로서 20대 58.1%, 30대 72.7%, **40대 78.3%로 올라가 頂点**을 기록한 후 하락하여 **50대 72.2%, 60세 이상 37.5%로 하락**

· 고용률 추세를 보면, 30대, 40대, 50대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20대와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음

- 2012년 현재 **60세 이상의 정규직 비율은 29.5%에 불과**하고 평균 66.7%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며, **50대의 정규직 비율도 평균에 못 미치고** 있음
  · **50대의 정규직 비율**은 2007년 57.4%에서 2012년 62.4%로 높아졌지만, **계속해서 평균 이하**를 유지하고 있음
  · **60세 이상의 정규직 비율은 2007년 34.0%에서 2012년 29.5%로 하락**했으며, 20대에서 50대까지 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임
  · 20대, 30대, 40대의 정규직 비율은 2007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며, 전체 평균인 66.7%에 비해서도 높은 편임
  · 연도별 정규직 비율은 2007년에 비해 완만하지만 추세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연령별 고용률 추이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대	60.0	59.1	58.2	58.2	58.5	58.1
30대	72.9	72.9	71.3	72.0	72.2	72.7
40대	78.3	78.4	77.7	77.8	78.4	78.3
50대	69.7	70.6	70.3	70.9	71.6	72.2
60세 이상	38.1	37.2	36.7	36.0	36.5	37.5
전체	59.8	59.5	58.6	58.7	59.1	59.4

자료 : 통계청(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주 : 15세 이상 인구 기준(ILO)

< 연령별 정규직 비율 추이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대	68.8	69.0	68.3	68.7	68.4	69.5
30대	70.2	73.3	74.8	76.7	75.7	76.9
40대	65.9	68.4	67.7	70.2	69.5	70.9
50대	57.4	60.4	59.4	60.7	60.4	62.4
60세 이상	34.0	34.3	27.3	30.4	29.5	29.5
전체	64.1	66.2	65.1	66.6	65.8	66.7

자료 : 통계청(KOSIS)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매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 기준.

- 2011년 현재 연령별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60세 이상**은 **무직과 무응답 등 '기타'의 비중이 49.2%**에 달하며, **50대도 고용이 매우 불안정**함
  · 상용직의 비중은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높게 유지되다가, 40대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등 나이가 많아질수록 고용 안정성이 떨어짐
  · **자영자의 비중은 40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50대에 정점**을 기록함
  · **50대는 자영업의 비중이 21.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으며, **상용직**의 비중이 20대, 30대, 40대에 비해 **크게 낮아, 고용의 안정성이 매우 낮음**

< 연령별 가구주 종사상지위 >

(단위: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기타	합계
20대	67.2	11.6	1.9	2.4	2.9	0.3	13.7	100.0
30대	66.5	9.4	2.1	5.7	8.4	0.0	8.0	100.0
40대	53.7	10.0	3.8	10.9	15.1	0.0	6.4	100.0
50대	38.4	12.4	7.8	8.3	21.9	0.1	11.0	100.0
60세이상	12.3	13.6	5.6	3.3	16.0	0.0	49.2	100.0
전체	46.2	11.0	4.5	7.6	14.9	0.1	15.6	100.0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1)를 활용하여 재계산)
주: 각 연령대별 전체 가구 대비 비중. 무급가족 =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 비취업, 무응답 등

⑤ (노후 준비) 60세 이상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14.6%에 불과하고 퇴직연금 가입률도 낮은 반면, 20~50대는 공적연금 가입률이 80%내외로 높음

- 공적연금 가입률은 30대가 84.0%로 가장 높고, 40대는 80.7%, 50대는 77.1%로 낮아지며, 60세 이상은 14.6%로 급락하는데, 이는 국민연금의 역사[9]가 25년에 불과하기 때문임
  -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가입률은 30대가 47.0%로 가장 높고, 대부분 현역에서 이미 은퇴한 60세 이상의 경우는 7.6%에 불과함
  - 60세 이상 가구주의 78.7%가 '노후 준비 부족'(전혀 안됨, 잘 안됨, 무응답)이라고 답변하여, 다른 세대에 비해 20%p 이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연금가입 등 노후준비 상황 >

(단위: %)

	공적연금 가입률	퇴직금/퇴직연금 가입률	노후 준비상황					
			아주 잘 되어 있음	잘 되어 있음	보통	잘 되어 있지 않음	전혀 되어 있지 않음	무응답
20대	77.0	45.6	0.2	5.2	37.2	30.8	26.6	-
30대	84.0	47.0	1.1	6.5	41.5	31.9	19.0	0.1
40대	80.7	36.1	1.6	6.8	35.9	34.2	20.8	0.7
50대	77.1	30.1	2.4	8.3	33.7	31.8	19.1	4.8
60세이상	14.6	7.6	0.9	3.8	16.6	18.7	10.8	49.2
전체	61.7	29.1	1.4	6.2	31.0	28.7	17.4	15.2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2)를 활용하여 재계산)
주: 1) 각 연령대별 전체 가구 대비 비중.
2) 무응답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전혀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석할 수 있음

9)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1999년 4월 도시지역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었음.

3. 시사점

○ 60세 이상은 노후준비 부족, 50대는 고용 불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침

- **60세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소득분배, 가계수지, 소비지출, 고용 등 모든 경제적 지표가 나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노후준비가 가장 부족**한 상태임
  · **선진국**의 60세 이상은 행복도가 가장 높은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열악한 '행복인프라'로 인해 **60세 이상**의 행복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50대** 가구는 소득 수준은 높지만 소득분배, 소비, **고용, 노후준비 등 4가지 경제지표 측면에서 60세 이상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쁜 상태에 있으며, 특히 고용의 질이 나쁘다**는 점이 행복감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50대**의 경우 **소득은 가장 높**지만, 엥겔계수도 60대 다음으로 높아 생활수준이 좋지 않고, 특히 **고용의 질이 '60세 이상'과 더불어 가장 나쁜 세대**임

○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 등 노후 지원이 필요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률이 14.6%에 불과한 '60세 이상'의 가구들이 최소한의 기초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
  · 기초생계 유지에 크게 부족한 '기초노령연금'을 보완하고, 노인친화적 일자리를 늘려야함

○ 50대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확산'과 '정년 연장' 등을 검토

- 안정적 일자리는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나아가 '행복감'의 증대에 기여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음
  · 고용률과 정규직 비율이 급락하고 있는 '50대'를 위한 임금피크제 확산, 정년연장,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함

○ 노부모와 함께 사는 2세대 가구와 3세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

- 2세대와 3세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구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60세 이상 가구주의 낮은 행복감을 높일 수 있을 것임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참고 자료 및 문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07년, 2011년
- 한국은행,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12년
- OECD, 행복지수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 美컬럼비아大, 세계행복보고서 (World Happiness Report)
(http://www.earth.columbia.edu/sitefiles/file/Sachs%20Writing/2012/World%20Happiness%20Report.pdf)

- 현대경제연구원, 소득과 삶의 질 격차 확대되고 있다, 경제주평 12-5 (통권 476호), 2012.2.3
- 요하네스 발라허, 『경제학이 깔고 앉은 행복』, 2011 (번역)
- 브루노 프라이 & 알로이스 스터처, 『경제학, 행복을 말하다』, 2008 (번역)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행복의 경제학』, 2012 (번역)
- Graham, Carol, *Happiness around the World*, 2011
- Oswald, Andrew. J,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1997
- Blanchflower & Oswald, Is Well-being U-Shaped over the Life-Cycle?, 2008

<별첨 1> 행복의 결정 요인

<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

내적 요인	외적 요인		
개인적 특성	인구통계학적요인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유전적 기질, 성격, 가치관, 욕구 수준	연령, 교육, 종교, 대인 관계, 건강	정치적 참여 기회	소득 수준, 분배, 직장 안정성, 직업 만족도

요하네스 발라허 (2011)

<별첨 2> 세대별 가구 특성과 가족 구성

○ **(가구 특성) 세대별로 가구 특성을 보면,**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고령화와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에 따라 여성 가구주의 비중이 42.1%로 가장 높고, 취업인원과 가구원 수는 급락함

· 60세 이상의 경우 취업률은 45.7%로 가장 낮고, 맞벌이 비율도 11.1%로 가장 낮으며, '고졸 이하'의 비중은 8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 가구 및 가구주 특성 >

(단위: 명, %)

	가구 특성						가족 구성	
	가구원	취업인원	맞벌이	여성가구주	취업여부	고졸이하	1/2/3세대	유배우자
20대	1.9	1.1	10.9	44.2	85.8	19.8	66.4/31.7/2.0	30.0
30대	3.2	1.3	30.0	15.9	93.9	33.1	21.9/72.5/5.6	79.5
40대	3.5	1.5	41.1	20.5	93.9	51.1	12.1/80.9/7.0	83.5
50대	2.8	1.7	85.5	31.1	88.4	77.4	33.8/60.4/5.9	68.4
60세이상	2.0	0.8	11.1	42.1	45.7	89.0	72.5/23.1/4.4	58.4
전체	2.8	1.3	29.1	28.2	79.9	61.9	36.2/58.2/5.6	72.8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1)를 활용하여 재계산)

주: 1) 전체 가구 (1인 가구 포함, 비농가) 기준
2) 1세대 = 부부 가구, 2세대 = 부모+자식 가구, 3세대 = 할아버지할머니+부모+자식 가구

- 50대 가구의 경우 맞벌이 비중이 85.5%로 가장 높아, 소득은 높지만 경제적 부담도 매우 무겁다는 점을 반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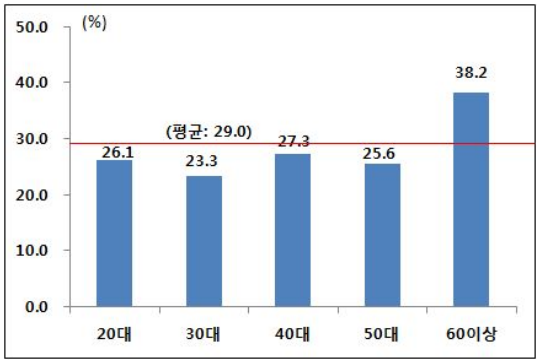
· 40대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가 3.5명으로 가장 많고, 취업률이 93.9%로서 가장 높아,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임

○ **(가족 구성) 60세 이상의 경우 핵가족**(1세대 가구) 비율이 72.5%로 가장 높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2세대 가구 비율은 23.1%로 가장 낮음

· 60세 이상의 유배우자 비율은 58.4%로서 20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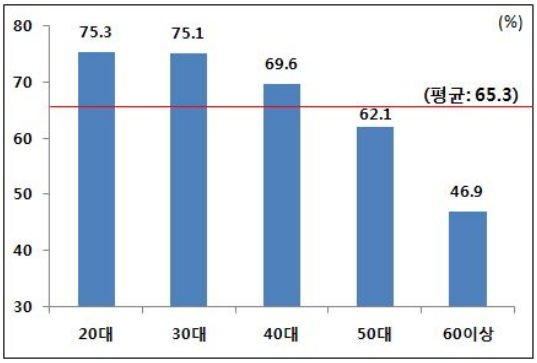
<별첨 3> 세대별 주요 지표

<세대별 적자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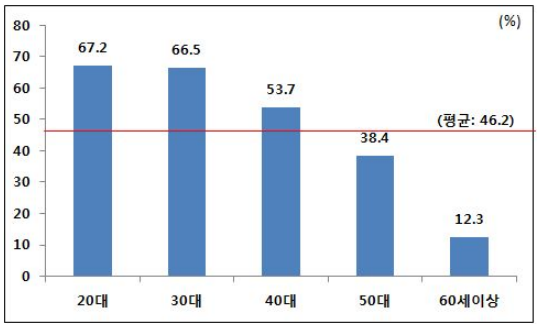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1) 마이크로데이터 토대로 계산)

<세대별 중산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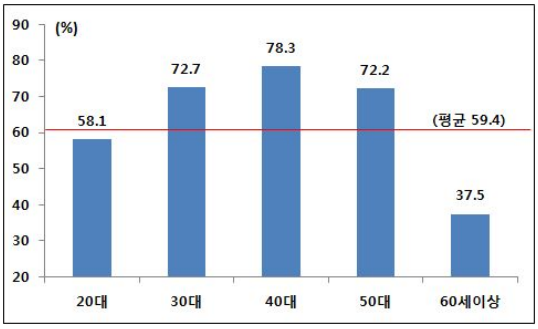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1) 마이크로데이터 토대로 계산)

<세대별 가구주의 상용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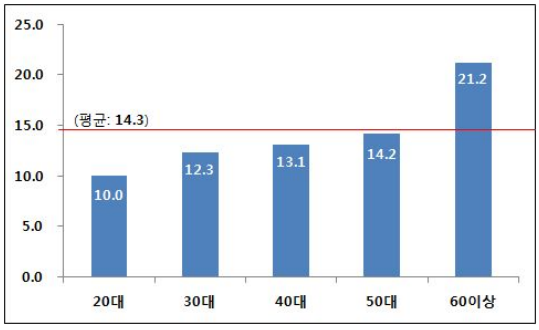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1) 마이크로데이터 토대로 계산)

<세대별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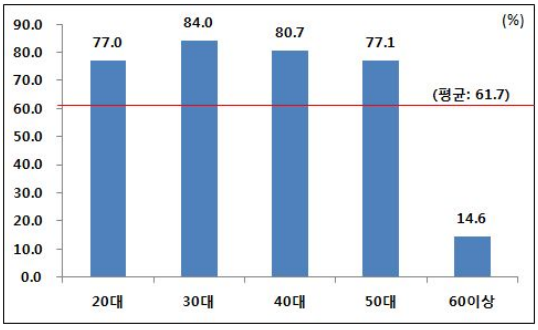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주 : 15세 이상 인구 기준(ILO)

<세대별 엥겔계수>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1) 마이크로데이터 토대로 계산)

<세대별 공적연금 가입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2) 마이크로데이터 토대로 계산)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1.8	0.1	2.5	1.3	4.1	2.2	2.0	1.3	3.1	-0.1	2.0
유로 지역	1.4	0.8	0.2	0.1	-0.4	-0.4	0.0	-0.2	-0.1	-0.6	-0.2
일본	-0.6	-7.3	-2.8	10.4	0.6	1.9	6.0	-1.0	-3.8	-0.4	1.2
중국	9.3	9.7	9.5	9.1	8.9	7.8	8.1	7.6	7.4	7.9	8.2

주 1) 2013년 전망치는 IMF 2013년 1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3월 8일	3월 14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2.05	2.03	-0.02%p
	엔/달러	77.66	79.37	85.86	94.92	96.07	1.15￥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102	1.2960	-0.0142$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4,397	14,539	142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2,284	12,381	97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66	2.62	-0.04%p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090.3	1,109.0	18.7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2,006.0	2,002.1	-3.9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3월 8일	3월 14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91.87	92.99	1.12$
	Dubai	104.89	92.89	107.99	106.56	104.57	-1.99$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94.38	296.26	1.88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8	3.4	3.6	2.6	1.5	2.0	3.1
	민간소비 (%)	2.9	1.6	2.3	1.4	2.2	1.8	2.5
	건설투자 (%)	-7.1	-3.0	-5.0	-0.3	-2.2	-1.5	2.2
	설비투자 (%)	8.9	-1.1	3.7	2.6	-5.8	-1.8	4.8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138	295	433	28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109	174	283	257
	수 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2,750	2,729	5,479	5,786
	(증가율, %)	23.6	14.9	19.0	0.5	-3.1	-1.3	5.6
	수 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2,641	2,555	5,196	5,529
	(증가율, %)	26.7	20.2	23.3	2.3	-4.0	-0.9	6.4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7	1.7	2.2	2.5
실업률 (평균, %)		3.8	3.0	3.4	3.6	2.9	3.2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42	1,112	1,127	1,06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